

중등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마이스터고 및 직업교육정책방안을 중심으로

2012.10

국회의원 유은혜

민주통합당/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직업교육 정상화, 공교육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국회의원 유은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민주통합당

지난해 말부터 대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고졸사원을 채용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력과 학벌만을 중시하던 취업시장의 단단한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좋은 징조이기도 하고, 과거 '실업계고등학교'라 불리던 중등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기존의 직업교육기관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산업계의 협력에 기반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기 중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과 진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 중등 직업교육과 대학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 교육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선취업 후진학'을 내세우며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예전과 다른 관심에 지나치게 고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직업교육 정책을 진단하고, 직업교육 현장의 낡은 관행을 들춰야 한다고 봅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강을 건너고 열악한 교육여건의 벽을 넘기도 전에 희망을 불빛을 봤다고 다 온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주저앉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에 가려 보이지 않는 직업교육의 그늘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교육 정상화보다는 기능대회 수상에 눈독을 들이는 학교, 경쟁력이 없다고 성급히 판단을 내린 특성화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려는 조급한 정부, 산업체와 직능단체·지자체와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교육청, 반짝 관심의 눈빛을 보였

다가 이내 시선을 거둬버리는 국회..., 직업교육의 미래를 염려해야 할 모든 주체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또다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며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치와 실적에 얽매이지 않는 내실 있는 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정책자료집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하나하나 되새기며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직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 정책자료집을 구성하고 제작하는데 심혈을 쏟아주시고도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는 사양하신 직업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직업교육 현실이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례

I. 문제제기	9
II. 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10
1.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 및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10
2. 마이스터고 현황	12
2-1. 마이스터고 지정학교 진로 현황	12
2-2.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현황	13
2-3. 2008년 7월 발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의 추진 현황	15
2-4. 마이스터고 공모교장 산업계 경력에 따른 급여(연봉) 현황	16
2-5.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	18
2-6. 마이스터고 교사 인사 규정	21
2-7. 마이스터고 지정시 교과부 위촉 심의위원 현황	22
2-8. 마이스터고 공모교장 공모 심사 현황	23
3. 특성화고 현황	25
3-1. 특성화고 지정현황	25
3-2. 교육감지정(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추진 현황	25
3-3.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정원 확보율 및 기간제 교사 비율	26
4. 기능반 현황	27
4-1. 공립 공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수업 참여 실태와 기능반 학생 및 기능반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실태	27
4-2. 공업고 예산대비 실험실습비, 일반 학생대비 기능반 실험실습비, 기능반 운영비 현황	30
4-3. 기능대회(지방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진로	30
5. 교과부 직업교육정책 추진 현황	32
5-1. 교과부 2005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항목별 추진상황	32
5-2. 교과부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36
5-3. 중기청 지원 중소기업특성화교육성사업의 2012년 정부·교육청 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	40

5-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42
5-5. 산업체에 의한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사업지원예산 및 운영 결과	44
5-6.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사업 완료학교의 특성화 사업 분야로의 취업 현황	45
5-7.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 현황	47
III. 마치며	50

<표-17> 기능대회 입상자 2012년 2월 졸업생 진로 일반 현황	32
<표-18> 교육부 2005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및 항목별 추진상황	35
<표-19> 2010년 5월 발표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2011년-2012년 주요 추진내용	40
<표-20>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의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사업비 및 기타 사업비 현황	42
<표-21> 2011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44
<표-22> 산학협력취업약정제(협약기업-협약학과)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 및 취업 현황(2012년 2월 졸업생 진로 현황)	46
<표-23>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산학협력협약(참여)기업으로의 취업 현황(2012년 2월 졸업생 진로 현황)	47
<표-24>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의 문제점 및 대안	49
<표-25>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50

표 차례

<표-1>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12
<표-2> 전문계고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12
<표-3> 마이스터고 지정 전·후 취업률 비교	14
<표-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예산 지출 현황	15
<표-5>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항목별 사업 내용	16
<표-6> 경영자 출신 교장 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18
<표-7> 산업체 출신 교원(교사·교감·교장)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19
<표-8> 마이스터고에 대한 한국직업능력발원 및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 현황	20
<표-9> 2012년 마이스터고의 인사 규정 현황	22
<표-10> 4~7차 마이스터고 심의위원 현황	23
<표-11> 공모교장 학교 및 교육청, 교과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현황	25
<표-12> 특성화고 지정현황	26
<표-13> 2012학년도 교육청별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정원 확보율 및 기간제 교사 비율	28
<표-14> 전국기능대회 출전 기능반 학생 수업참여 및 수업대체 현황(2012학년도 1학기)	30
<표-15> 교육청별 기능반 학생 및 기능반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현황(2012학년도)	30
<표-16> 2011학년도 4개 지역 4개교 실험실습비 및 기능반 운영비 현황	31

I 문제제기

MB 정부의 중등직업교육정책은 크게 2008년 6월에 발표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과 2010년 5월에 발효한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제3호 안전인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 중에서도 핵심 정책은 전문계고 체제개편 방안의 마이스터고(50개교)를 통한 취업 선도모델 정착과 체제개편 지원방안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이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마이스터고 학생의 대기업 취업 안정 상황과 고졸 취업 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또한 MB정부의 취업 강조 정책으로 2009년 취업률 16.7%를 저점으로 하여 2010년부터 취업률이 서서히 증가되고 있고, 선취업 활성화를 위해 IMF이후 고졸을 거의 채용하지 않던 금융기관 등에서 고졸을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고졸 취업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MB 정부에 들어서 발표한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서 '10년 대비 '20년 일반계고 감소율을 28%로 설정한 반면 전문계고 감소율을 53%로 설정함으로써 직업교육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저출산고령화 진입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과 대학입학자 급증에 따른 입직연령 증대와 대졸자 하향취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일반계고보다 취업률이 높은 전문계고 감축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급격한 취업률 상향 요구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아직은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목표 취업률을 60%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취업률을 7% 올리는데 2년이 걸렸으나 다시 2년 만에 취업률을 36% 올리도록 독려함으로써 학교 현장은 취업률 올리기에 급급한 상황이 된 것이다. 산업수요맞춤형고인 마이스터고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재정지원으로 향후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나 괜찮은 일자리의 마이스터고 집중에 의한 특성화고의 소외가 예상되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본 정책 자료집에서는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 현황, 마이스터고 및 기능반 실태, 직업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제대로 된 진단이 되고, 제대로 된 진단이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직업교육에 대한 처방 즉 직업교육내실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II 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직업교육의 일반 현황으로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진학을 현황, 전문계고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마이스터고 및 기능반 실태로 마이스터고와 기능반 진로 및 행·재정 지원 실태, 제반 직업교육 육성방안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 및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표-1>, <표-2>를 보면 2012년 전문계고 졸업생 수는 2000년 대비 60.5% 급감하였고, 취업률은 2000년에 비해서 12.8% 감소된 반면 입학정원 미달률은 6.6%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률이 2009년 16.7%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선취업·후진학정책 때문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후 전문계고 입학정원 미달률이 획기적으로 감소된 것은 2000년 1월 발표 실업고등학교 육성정책, 2001년 1월 발표 실업교육 육성방안, 2005년 12월 발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10년 5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으로 인한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전문계고 교육 여건 및 전문계고 이미지 개선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12년 졸업생 및 2011~2012년 입학생이 많이 줄어든 것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인하여 인문반/직업반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를 특성화고에서 일반고계고로 분류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부가 운영하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포털의 유형별 학교통계에 의하면 전문계고는 특성화고 482개교, 마이스터고 28개교, 학교 내에 직업반을 운영하는 일반고 180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단위 : %, 명)

구분 항목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¹⁾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졸업생 수	291,047	170,259	151,410	156,069	146,522	114,889
취업률	51.4(149,543)	27.7(47,227)	16.7(25,297)	19.2(29,916)	23.8(48,046)	38.6(44,359)
진학률	42.0(122,170)	67.6(115,164)	73.5(111,348)	71.1(111,041)	54.9(80,468)	-

주1)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종합고를 특성화고로 분류함에 따른 인원 조정
출처 : 교육통계연보

<표-2> 전문계고 입학정원 미달률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항목	2000	2001	2005	2010	2011 ¹⁾	2012 ²⁾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입학 정원	240,809	224,760	183,396	163,213	120,193	113,541
미달학생수	19,968	16,830	10,357	6,071	1,758	1,954
미달률	8.3	7.5	5.6	3.7	1.5	1.7

주1, 2)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종합고를 특성화고로 분류함에 따른 인원 조정
출처 : 교육통계연보, 국정감사자료

전문계고 40% 감축 방안을 제시한 직업교육선진화 방안 시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1일 6개 직업교육학회와 5개 직업교육 교장단이 전문계고 40% 감축은 선진화방안이라기 보다는 전문계고 구조조정 방안으로 보이므로 산업인력 수요 예측에 따른 양질의 인력 공급체계 구축 및 전문계고 유인체계 확립에 주력하는 것이 구직관속의 구인관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직업교육선진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교총이 2010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 필요인력 산출을 선행하는 등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 전교조가 2010년 기관지를 통해 학력주의·학벌주의 사회구조, 고졸자를 상회하는 대학 입학 정원, 대졸자 하향 취업, 산학관협력 인프라 미구축, 기존 전문계고 발전 방안의 미온적인 추진임에도 불구하고 선진화 방안에서는 근원적인 대책 없이 전문계고의 획기적인 감축(40% 감축) 및 선취업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고려할 때 전문계고 입학정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감축하는 것 보다는 산업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3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중고생 직업교육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일반교육 편중 현상(당시 한국의 중등직업교육비중은 34%로 OECD 국가 28개국에서 23위, 현재 특성화고 비중 17%)을 지적하며, 직업교육의 약화는 향후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할 때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중등직업교육비중을 더 이상 낮추기 보다는 중등단계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문계고 취업환경 개선에 힘을 더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마이스터고 현황

마이스터고의 현황을 살피는 이유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마이스터고 정책이 추진되면서 집중적인 행·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이며, 마이스터고를 통하여 취업 선도모델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전문계고 취업 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2-1. 마이스터고 지정학교 진로 현황

마이스터고 선정 후 준비 2년차인 1차 지정 마이스터고와 마이스터고 선정 후 준비 1년차인 2차 지정 마이스터고의 2009년 평균 취업률은 22.2%이었고, 2012년의 평균 취업률은 37.8%이었다<표-4참조>. 반면 전국 전문계고 전체의 2009년 평균 취업률은 16.7%이었고 2012년의 평균 취업률은 38.6%이었다. 마이스터고 지정학교의 취업률이 15.6%올라갈 때 전문계고의 취업률이 21.9%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전문계고 선취업 정책 및 마이스터고에 대한 집중적인 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스터고 지정학교의 취업률 상승도가 특성화고의 취업률 상승도 보다 못한 것은 마이스터고의 취업 지원 시스템이 2010년 마이스터고 입학생에 집중되어 있는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이스터고에 지정된 지 3~4년 된 학교의 취업률 상승도로 보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관 협력 인프라구축(산업체와의 교류 체계 구축,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교

육과정 개발 등) 및 확실한 고졸 취업 환경 개선 없이는 2013년에 졸업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 1기의 취업률 100%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취업 유지에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안민석, 2011).

또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재정지원이 집중될 경우 한정된 괜찮은 일자리의 마이스터고 졸업생 차지에 의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취업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동반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3> 마이스터고 지정 전·후 취업률 비교

항목 구분	취업률(08년 ¹⁾)			취업률(09년 ²⁾)			취업률(10년 ³⁾)	취업률(11년 ⁴⁾)	취업률(12년 ⁵⁾)
	동일계	비동일계	합계	동일계	비동일계	합계			
1차 마이스터고 지정교 (08년 지정- 9개교)	26.0	1.9	27.9	22.5	1.6	24.1	26.2	29.5	37.8
2차 마이스터고 지정교 (09년 지정- 21개교)	-	-	-	18.4	2.6	21.0			
합계	-	-	-	20.0	2.2	22.2			
전문계고	19.1			16.7			19.2	23.8	38.6

주1, 2) 2008년~2009년 마이스터고 준비기간

주1) 1차 마이스터고 지정년도, 2008년 지정교부터 예산 지원, 2009년 권영길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2) 2차 마이스터고 지정년도, 2010년 김춘진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3) 2010년 김춘진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4) 2011년 안민석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5) 2012년 유은혜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2-2.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현황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2008~2012년 예산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전문계고 중에서 3~4%를 차지하는 마이스터고가 중등직업교육 전체 예산의 21.7%를 지출한 것을 알 수 있다<표-7 참조>.

마이스터고에 대한 예산 집중으로 인하여 제작년 국정감사시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산업수요맞춤형고교로 설계하려하니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전문계고(특성화고)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일반 전문계고(특성화고)와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김춘진, 2010).

또한 2008년 OECD 연구진이 직업교육훈련 비교 연구시 직업교육에 있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한 것과 직업교육훈련 비교 연구에 참여하였던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연구진이 고용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김춘진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과 OECD 연구진의 지적사항을 고려할 때 직업교육에 산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배분과 함께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하려는 행정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성화고 학생을 고용할 산업체의 적극적인 연계 없는 직업교육예산 지출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예산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국고 ¹⁾	지방비	합계	예산 지출		
				마이스터고 ²⁾	특성화고 ³⁾	기타
2007 ⁴⁾	39	1,821	1,860	-	-	-
2008 ⁴⁾	71	2,772	2,843	700(24.6)	2,143	
2009 ⁵⁾	278	2,560	2,838	790(27.8)	2,048	
2010 ⁶⁾	369	2,458	2,827	589.5(20.8)	1,987.5(70.3)	250.3(8.9)
2011 ⁶⁾	946	2,233	3,179	592.4(18.6)	2,397.2(75.4)	189.7(6.0)
2012 ⁶⁾	989	2,574	3,563	630.4(17.7)	2,690.1(75.5)	243.1(6.8)
합계 ⁷⁾	2,653	12,597	15,250	3,302.3(21.7)	11,947.7(78.3)	

주1) 특별교부금 포함
 주2) 2008년 9개교 지원, 2009~2010년 21개교 지원
 주3) 2010년 1월 기준 671개교
 주4) 2009년 임해규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5) 2010~2011년 김춘진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6) 2012년 유은혜의원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주7) 2008년~2012년 합계

2-3. 2008년 7월 발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의 추진 현황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22개 섹터카운슬(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관련 협회 중에서 2개 협회(조선, 반도체)하고만 MOU를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도 나와 있지만 산업체의 참여를 견인할 만한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섹터카운슬 관련한 다양한 협회(조선, 반도체 외에 석유화학, 전자, 물류 등 20개 분야)와 교육과정, 교재 공동개발 등의 MOU를 체결하되 협회 산하 기업에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을 안내함으로써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협회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안민석, 2011).

<표-5>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 항목별 사업 내용

분야	구체적인 관련 대책	2010년~현재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마이스터고 졸업생 Career Path 확립	분야별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취업여건 개선 및 Career Path 확립	조선협회, 반도체협회 등 산업별 협회와 MOU 체결(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10년도 21개 기업이 실시한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대한 채용예정자훈련의 훈련비용 60,938천원 지원
	산업체 조기정착을 위한 병역이행 방안 개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에 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최대 4년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신설
교육과정 운영·지원	취업 후 계속교육을 통한 학위취득 기회 확대	사내대학 :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의한 설치 허용, 계열 회사 및 협력업체 종업원 입학 허용 계약학과 [예:하이닉스-한양대 나노반도체학과 등] : 대학의 교사·교재·교원 확보기준 제외(별도정원 인정), 산업단지 내 설치·운영 허용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교과용 도서 사용 자율화	교육과정 자율운영 모델 학교 육성을 위해 연구학교로 지정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과 다르게 교육과정 편성 가능토록 혼령 제정 충북반도체고, 반도체협회와 공동으로 교육과정 개발('09.8) 조선협회, 조선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MOU('09.12)
교원확보 및 인센티브제공	교장공모제를 통한 학교장 임용	28개 마이스터고 선정(산업체 출신 교장에 대해서는 전문계약직 가급 연봉 준용)
	우수교사 확보 우수 마이스터 교원(산학겸임교사) 확보 교원 인센티브 부여	「산업체 우수강사 지원사업」으로 마이스터고 1교당 2명의 산학겸임교사 인건비 지원(11.3) 마이스터고 사업 및 연구과제 참여 교원에 가산점 부여

분 야	구체적인 관련 대책	2010년~현재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우수 학생 선발유치	전국단위 학생모집, 소결과 적성을 고려한 학생선발	전국단위 선발 마이스터고 포털 사이트 및 홈페이지 운영(12년 축)
행·재정적 지원	마이스터고 기반조성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마이스터고 지정학교에 기반조성 25억원 및 교육과정 운영비 6억원 지원 중(08~)
	학비면제 및 장학금 지원	학비 면제, 5개 광역, 17개 기초지자체에서 66억원 旣 지원
	외국어교육 및 해외선진 직업교육 기회 제공	영국문화원과 마이스터고가 공동으로 외국어교육 프로젝트 진행 마이스터고 실무 외국어 교육 교재 개발
마이스터고 선정 및 평가	마이스터고 선정	마이스터고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실시중
	마이스터고 평가 및 인증시스템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및 인증시스템 모형 개발」 연구 완료

2-4. 마이스터고 공모교장 산업체 경력에 따른 급여(연봉) 현황

<표-6>을 보면 교사자격증 및 교장자격증이 없는 산업체 경력자 출신 마이스터고 공모 교장은 전문계약직 가급을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 근무년수의 산업체 출신 기준 교장보다 연봉을 20% 이상 더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올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9호)에 의거 산업체 출신 교사 중에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을 100%까지 인정하고, 과목 변경, 전직, 전과,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확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교직경력만 있는 기존 교장뿐만 아니라 산업체 경력이 있는 교사출신 교장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체 경력이 있는 교사의 경우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을 100%까지 인정받으나 전직, 승진시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게 되면 산업체 경력을 40% 적용받음으로서 산업체 경력이 10년인 교사의 경우 6호봉이 낮추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졸업 후 산업체 경력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교1에 따른 경력

환산을 상향 인정 기준에 의거 100% 인정하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전의 산업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에 의거 40% 인정함으로써 선취업·후진학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선취업·후진학으로 산업체 근무하다 나중에 대학교육을 마친 산업체 출신 교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인데 선취업·후진학을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업고 졸업 후 기능공으로서의 산업체 경험과 공과대학 졸업 후 엔지니어로서의 산업체 경험은 공업고 교사에게 모두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전의 산업체경력을 대학졸업 후 산업체경력과 차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 전 산업체 출신 교사의 산업체경력과 산업체 출신 교사의 전직, 승진시 산업체경력을 상통성(연관성)과 전혀 관계없는 경력과 동일하게 40% 인정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개정을 통해 산업체 경력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2005년 9월 6일 국가인권위에서 “공무원 경력보다 민간기업 경력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시정권고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현재 인권위 보도자료 코너에 탑재, 등록일 05년 9월 6일).

<표-6> 경력자 출신 교장 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학교명	이름	나이	산업체 경력내용	경력 인정 호봉 ¹⁾	경력 인정 기준 ²⁾
구미 전자공고	최00	57	LG전자 사원 ~ 상무(34.1년)	전문계약직가급 (연봉:100,229,000)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
부산 해사고	이00	57	대우그룹 이사 등(16.8년) STX 랜오션 전무(5.1년)	전문계약직가급 (연봉:100,184,000)	상동
부산자동차고 ³⁾	이00	59	삼성종합건설, 삼성전자, 삼성자동차 32년 근무	전문계약직가급 (연봉:107,965천원)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에 연봉액 책정을 요청하여 연봉액 107,965천원으로 확정
수도전기공고 ³⁾	강00	59	한국전력공사 31년 근무	43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교에 의한 상통직 조건 적용
울산마이스터고 ³⁾	장00	57	(주)풍산 31년 근무	근가1호봉	비고에 의한 상통직 조건 적용(상통직 적용 10할), 근경력(2.4) 산업체 경력(30.05) 총 인정경력 (32.09)

주1) 임용시 인정받은 호봉(40호봉, 근가1, 근가2 등)

주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교에 의한 상통직 조건 적용(상통직 적용 10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에 의한 산업체 경력 인정률 적용(공무원 경력 10할, 재야법조인경력 7할, 공공단체 경력 5할)
교사자격 소지 여부에 따른 산업체 경력 인정률 적용 여부

주3) 2010년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7〉 산업체 출신 교원(교사·교감·교장)경력 인정 내용 및 기준

구분	경력인정	경력 인정 기준 ²⁾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입학전 산업체 경력 교원	40%(4할)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9호-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교1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후 산업체 경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적용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다음전문직 전직, 교감·교장 승진	40%(4할)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9호-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교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전문직 전직, 교감·교장 승진시 원래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를 적용하여 호봉 재획정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00%(10할)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9호-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교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2-5.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

교과부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하에 마이스터고지원센터를 만들어 마이스터고 정책연구,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7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에 따라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진로와 관련하여서는 조기에 직업 기술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졸업 후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며 산업별협의체 및 기업체 협약을 통해 취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하여 정책연구, 프로그램개발, 컨설팅, 마이스터고 평가·인증을 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이성주, 2011).

그러나 기획과 실행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이 평가까지 깊숙이 관여할 경우 자기 사업을 자기가 평가하는 형국이 되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시 김춘진 의원이 한 바 있다(김춘진, 2010).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내실 있게 하되 국책사업으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 마이스터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때에는 객관성

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외의 공공기관 및 직업교육전문가 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정확한 사업 평가가 직업교육의 경쟁력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성주, 2011).

〈표-8〉 마이스터고에 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과제명	연구 내용	수탁처	연도
마이스터고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마이스터고 취업 가능 기회를 위한 산·학·관 협력 체계 구축 운영	○ 마이스터고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기업별 진로 경로 탐색 및 DB 구축 ○ 취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 기업 대상 협력 사업 운영	교과부	2011
	마이스터고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	○ 마이스터고 지식 재산 창출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지식 재산 보고 우수 아이디어 수상 및 IP-Meister 선정 ○ 마이스터고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교과부	2011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발	○ 마이스터고 학생 핵심 역량 모델 개발 ○ 마이스터고 학생 핵심 역량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 마이스터고 학생 핵심 역량 영역별 교수·학습 자료 분석 ○ 핵심 역량 영역별 적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도구 개발	교과부	2011
	마이스터고 교원 역량 개발 지원	○ 마이스터고 교원 역량 추출 ○ 마이스터고 교원 역량 실태 및 요구 파악 ○ 마이스터고 교원 역량 지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분석 ○ 마이스터고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 개발 ○ 마이스터고 교수·학습 평가 방법 및 도구 개발	교과부	2011
	(부산, 인천) 해사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 시스템 개발	○ 해사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운영 지침 개발 ○ 개발된 교육과정에 터한 졸업생 인증 기준 및 운영 시스템 개발	부산 교육청	2011
	(울산)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 시스템 개발	○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운영 지침 개발 ○ 개발된 교육과정에 터한 졸업생 인증 기준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울산 교육청	2011
	(충남) SMT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 시스템 개발	○ SMT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운영 지침 개발 ○ 개발된 교육과정에 터한 졸업생 인증 기준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충남 교육청	2011
	(충북) 바이오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 시스템 개발	○ 바이오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운영 지침 개발 ○ 개발된 교육과정에 터한 졸업생 인증 기준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충북 교육청	2011
	(충남) 자동차 부품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 시스템 개발	○ 자동차 부품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운영 지침 개발 ○ 개발된 교육과정에 터한 졸업생 인증 기준 및 운영 시스템 개발	충남 교육청	2011
	(경남) 항공 기술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인증 시스템 개발	○ 항공 기술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및 운영 지침 개발 ○ 개발된 교육과정에 터한 졸업생 인증 기준 및 운영 시스템 개발	경남 교육청	2011
	(부산)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 교재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 해양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개발 ○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교원 역량강화 지원 ○ 해양 분야 영 마이스터 교육을 위한 산학 연계 구성 및 교과 연구회 운영 지원	부산 교육청	2011
	(경남) 항공 기술 분야 마이스터고 교재 개발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 항공 기술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개발 ○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교원 역량강화 지원 ○ 해양 분야 영 마이스터 교육을 위한 산학 연계 구성 및 교과 연구회 운영 지원	경남 교육청	2011

	(부산) 기계 분야 마이스터고 교재 개발 지원 사업	○ 기계 분야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개발 ○ 기계 분야 마이스터 교육을 위한 연구 학교 운영 지원	부산 교육청	2011
마이스터고 선정·지원	마이스터고 교원 역량 개발 지원	○ 마이스터고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수준 및 요구 분석 ○ 마이스터고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과부	2012
	마이스터고 선정 및 개교 준비 지원	○ 마이스터고 선정 및 지원 ○ 개교 준비 지원 시스템 구축 ○ 개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 ○ 개교 준비 상황 점검 및 피드백 ○ 마이스터고 선정 및 개교 준비 지원의 개선 과제	교과부	2012
마이스터고 컨설팅	마이스터고 포털 사이트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 업무 관리 시스템 공인 인증서 도입 및 인증 모듈 설치 ○ 현장 요구 사항 보완 개발 및 서비스 안정화 ○ 마이스터고 포털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 보수	교과부	2011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마이스터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 마이스터고 분기별 운영 현황 모니터링 ○ 마이스터고 반기별 현장 점검 ○ 마이스터고 성과 관리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교과부	2011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및 재지정 지원	○ 마이스터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 모니터링 ○ 마이스터고 운영 현장 점검 및 시·도교육청 연차 평가 지원 ○ 마이스터고 조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마이스터고 재지정 심사 지원	교과부	2012
	마이스터고 포털사이트 및 홈페이지 운영	○ 사용자 요구 분석 ○ 요구 사항 보완 개발 및 서비스 안정화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	교과부	2012
마이스터고 성과 분석	마이스터고 성과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성과 평가	○ 성과 관리 시스템 운영 ○ 마이스터고 성과 평가 ○ 포털 구축 및 운영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2011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마이스터고 추진 상황 점검 회의 개최 ○ 마이스터고 분기별 운영 현황 모니터링 ○ 마이스터고 반기별 현장 점검 ○ 마이스터고 성과 관리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교과부	2011
	마이스터고 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및 재지정 지원	○ 마이스터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 모니터링 ○ 마이스터고 운영 현장 점검 및 시·도교육청 연차 평가 지원 ○ 마이스터고 조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마이스터고 재지정 심사 지원	교과부	2012
	마이스터고 운영성과 분석 및 모형화 방안	○ 마이스터고 정책 형성과 집행 영역 분석 도구 개발 ○ 마이스터고 정책 집행 영역 성과 분석	교과부	2012

2-6. 마이스터고 교사 인사 규정

2012년 사립학교를 제외한 마이스터고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13개 교육청에서 10개 교육청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1년에서 6년 이상의 전보유예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필요 이상의 행·재정적인 지원과 인사상 혜택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균형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균형있는 행·재정적인 지원과 인사지원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균형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9> 2012년 마이스터고의 인사 규정 현황

	마이스터고				
	교원 전보 주기 ¹⁾		전보유예 가능기간	전보유예 조건	가산점 부여 여부 ²⁾
	일반교과	전문교과			
서울	-	-	-	-	-
부산	3	5	제한없음	- 학교 학생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자	부여
대구	4	4	6	3 - 만기근무 후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1년씩 최대 3년 연장 가능	부여
				3 - 7년 근무 후 전국기능대회 입상지도교사 1년 씩 최대 3년 연장 가능	
인천	5	5	2	- 전공교과교사 교육과정운영	부여
광주	4	4	3	-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	미부여
대전	-	-	-	-	-
울산	5	5	3	- 학교 근무연한 만기	부여
경기	5	5	5	- 대치가 불가능한 교과 담당교사	부여
				- 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연구학교 연구담당 보직교사 및 연구담당교사 - 교육상 특히 필요하여 학교장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강원	5	5	3	- 학교장요청	부여
충북	5	5	5	- 본인 유예 희망	부여
충남	5	6	2	- 학교근속만기시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학년도 근무성적 '우'이상, 전문교과 전원	부여
전북	6	6	2	- 1년 2명 이내	미부여
전남	4	5	3	- 전문교과담당자	부여
경북	4	8	2	- 영마이스터 육성에 공헌자	부여
				- 마이스터고 운영에 필요한자	
경남	5	5	3	-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부여
			1	- 기능경기대회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	

주1) 인사 전보 주기(년)

주2)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시범(연구)학교 추진으로 가산점 부여 받는 것 포함

2-7. 마이스터고 지정시 교과부 위촉 심의위원 현황

위원 구성은 외형적으로는 산업계, 학계, 정부 및 교육청 인사를 골고루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차와 5차는 특정 산업계 보다는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인력동향에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위주로 구성을 한 반면, 6차는 학계, 정부 및 교육청 인사위주로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사는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인력동향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특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수급 동향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특정산업체 관계자는 그와 반대로 특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 수급 동향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있으나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인력 동향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구성에서 근로자단체 인사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스터고에서 배출한 인력이 제 역할을 하려면 노·사·정이 함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심의위원은 산업계, 학계, 정부 및 교육청, 노동계 인사를 골고루 배치하되 산업계 인사의 경우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인력동향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인사와 함께 마이스터고 신청분야와 관련있는 산업분야 전문가도 배치하여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인력동향과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 동향 및 양성에 대하여 심도 높게 논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10> 4~7차 마이스터고 심의위원 현황

지정차수	소속 ¹⁾
4차('11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능력개발실장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장
	(사)한국농수식품 CEO연합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기획국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당연직)	

5차('11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능력개발실장
	중소기업연구원 인력·기술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센터장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캠퍼스 교학처 처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센터장
6차('12년 1월)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관 국장(당연직)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연구조사본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연구그룹장
	한국농수산대학 수산양식학과 학과장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인천 폴리텍대학 자동차과 교수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충남교육청 창의인재육성과 장학사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장(당연직)	

2-8. 마이스터고 공모교장 공모 심사 현황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입에도 불구하고, 9개 교육청에서 6개 교육청이 심사위원에 산업계 인사가 빠져있었고, 9개 교육청 9개 학교 중에서 해당학교 교원(위원)이 빠져있는 곳이 5개교이어서 균형 있는 심사위원 배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대구교육청 및 경남교육청 마이스터고 심사위원의 경우 교장·장학관·퇴임 교장이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학교관리직위주의 심사위원 구성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교육청 전문직이나 관리자 외에 같이 근무할 교사를 대표할 교원위원과 산학협력 의지와 역량을 판단할 산업계 심사위원을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표-11> 공모교장 학교 및 교육청, 교과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현황

구분	심사위원 구성 ¹⁾	
서울	학교	학교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심사 실시
	교육청	교육청 장학관 1인, 학부모위원 1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1인, 마이스터고지원센터 소장 1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청장 1인
대구	학교	지역위원 1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교원위원 3명, 학부모위원 2인, 법률전문가(변호사)1명, 학부모 4인
	교육청	장학관 3인, 공모교장 1인, 학부모 1인, CEO 1인, 학교운영위원 1인, 변호사 1인
울산	학교	교육청 장학관 1인, 특성화고 교장 1인, 일반고 교장 1인, 대학교수1인, 지역인사(퇴임교장) 1인, 공모학교 학교운영위원 1인, 공모학교 학부모 1인.
	교육청	대학교수 1인, 회사 대표이사 1인, 대기업 교육원장 1인, 상공회의소 본부장 1인, 특성화고 교장 2인, 공모학교 운영위원 1인, 공모학교 학부모 1인
충북	학교	교원위원 2인, 학부모위원 1인, 지역위원 2인, 식품회사 공장장 1인, 동문회 2인, 학부모 2인.
	교육청	장학관 2인, 교원위원 1인, 학부모의원 1인, 교수 2인
충남	학교	학교운영위원 4인, 외부위원 4인
	교육청	교육의원 1인, 전교육장 1인, 학교운영위원 3인, 지역위원 2인, 변호사 1인
전북	학교	교장 2인(도 내·외), 협약기업체 1인, 동창회 1인, 운영위원장 1인, 운영위 지역위원 1인, 학부모위원 2인
	교육청	장학관1인, 교장 2인, 학부모위원 1인, 변호사 1인, 지역인사 1인, 외부전문가 1인
전남	학교	학교운영위원 3인, 학부모대표 2인, 지역위원 2인, 동창회임원 1인, 법률전문가 1인
	교육청	학부모위원 2인, 외부전문위원 3인, 지역위원 2인, 교원위원 2인, 법률전문가 1인
경북	학교	-
	교육청	교육청 과장 1인, 공모교장1인, 대학교수 1인, 군청 사무관 1인, 한수원 1인, 학교운영위원장 1인, 학부모 1인
경남	학교	지역위원 2인, 학부모위원 2인, 교원위원 2인, 학부모회 임원 2인, 동창회 임원 2인, 교사 1인, 지역 학교장 1인
	교육청	지역위원 1인, 학부모위원 2인, 외부전문가 2인, 교장 4인

3. 특성화고 현황

3-1. 특성화고 지정현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한 교육감지정특성화고는 300개교, 정부 부처지원 특성화고는 107개교이다.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중에서 정부부처에 의한 지원을 받는 특성화고는 57개교로 교육청 지원형특성화고와 정부 부처에 의한 지원을 받는 전 문계고를 합치면 350개교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이스터고 28개교, 학교 내에 직업반을 운영하는 일반고 180개교를 제외한 특성화 고가 482개교이므로 특성화고 전체의 73%가 교육청지원형특성화고와 정부부처 지원 형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다.

<표-12> 특성화고 지정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에 의한 교육감지정특성화고 (교육청지원형특성화고)	62	30	17	23	5	6	10	48	21	7	12	0	11	42	0	6	300
정부 부처지원 특성화고 (정부부처연계형 특성화고)	12	14	4	13	5	6	0	16	3	7	8	3	2	9	5	0	107
교육감지정특성화고중에서 정부부처에 의한 지원을 받는 특성화고	12	13	3	12	0	0	0	1	4	0	2	0	1	9	0	0	57

3-2. 교육감지정(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추진 현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6조 전문계 고등학교 등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제9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종전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각각 이 영 시행일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교육감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된 학교의 운영 성

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종전의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전문계고가 자동으로 특성화고로 전환되게 되었다. 또한 교육감이 2015년 2월 28일까지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된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는 자체적 기준에 의거 특성화고 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교 등의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지정·고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된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종전에도 교육감이 지역의 형편에 따라 특성화고의 유지 또는 일반계고 전환을 추진하여 왔는데 시일을 정하여 특성화고의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은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OECD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중등직업교육기관의 계속 지정 여부를 시일을 정하여 추진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노령화시대에 따른 일할 사람의 부족 및 고학력화에 따른 입직연령증가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고학력화를 부추기는 특성화고의 일반계고 전환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13> 2012학년도 교육청별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정원 확보율 및 기간제 교사 비율

(단위: 명, %)

시도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사 정원	교사정원 확보율	정규직 교원수	비정규직 교원수	비정규직 교원 비율
서울	2,414	98.72%	2,051	332	13.75%
부산	1,008	100.00%	827	181	17.96%
대구	786	100.00%	677	109	13.87%
인천	1,102	100.00%	1,004	98	8.89%
광주	451	100.44%	374	79	17.52%
대전	404	100.00%	366	38	9.41%
울산	347	100.00%	313	34	9.80%
경기	2,902	100.41%	2,619	295	10.17%
강원	524	115.27%	557	47	8.97%
충북	724	100.00%	672	52	7.18%
충남	655	100.46%	583	75	11.45%
전북	489	100.00%	472	17	3.48%
전남	1,015	100.30%	919	99	9.75%
경북	961	101.25%	872	101	10.51%
경남	785	99.87%	714	70	8.92%
제주	194	100.00%	174	20	10.31%
세종	47	97.87%	45	1	2.13%
합계	14,808	100.53%	13,239	1,648	11.13%

3-3.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정원 확보율 및 기간제 교사 비율

2012학년도 교육청별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사정원 확보율 및 기간제 교사 비율이 세종시교육청은 2.13%인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17.96%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등직업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기간제 교사 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기능반 현황

기능반 현황을 살피는 이유는 기능반 육성의 목표가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배출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마이스터고의 목적과 부합하고, 기능반 학생의 기능대회 메달 획득을 위한 수업 결손이 운동부 못지않기 때문이다.

4-1. 공립 공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수업 참여 실태와 기능반 학생 및 기능반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실태

1학기 수업일수 97일 내외이나 7일 전일수업 불참에서 83일간 만나질 수업 불참(만나질 불참 포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일에서 15일 전일 불참한다고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증언을 들어 보면 수년전부터 전국기능대회의 전초전이라할 수

있는 1학기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을 위해 4주 이상 수업을 빠져왔다고 한다.

이는 교육청에서의 기능대회 메달 획득 독려 및 기능대회 입상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에 의한 경쟁과열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능반 학생 성적 가산점 규정이 대부분 없어졌으나 아직도 광주 1개교와 강원도 6개교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반 학생과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능반으로 활동한다 하여 성적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능반 지도교사 가산점 또한 16개 교육청 중에서 11개 교육청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기능경기대회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07.10.17)시 아직도 기능반 학생 성적 가산점이 존재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교과부가 “시·도 직업교육 담당관 워크숍” 등을 통하여 기능반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왔으나 미진한 면이 있기에 향후, 장학지도를 통하여 기능반 학생들에 대한 성적가산점 부여 대신 취업알선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국정감사에서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정상적인 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직업기초능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부가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학교운동부 정상화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과 같이 기능반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학생이 있는 학교에도 “기능반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 학생 수업 정상화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정상적인 수업 참여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기능반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 학생 수업 정상화 협조 요청”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기능반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 학생들이 정상수업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기능반 학생 성적 가산점 규정 폐지”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성적관리에 있어서의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기능반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 학생 수업 정상화 협조 요청”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기능반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 학생들이 정상수업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표-14> 전국기능대회 출전 기능반 학생 수업참여 및 수업대체 현황(2012학년도 1학기)

구분 (시도)	학교	전국기능대회 출전학생수	1학기 수업일수	1학기 정상 수업 참석일수 ¹⁾	1학기 수업 불참 방식 ¹⁾	
					오전 또는 오후 수업 불참 (반나절 불참)	전일수업불참
서울	S공고	14	103	20	0	
인천	I기계공고	21	91	84		0
대구	K기계공고	25	96	81		0
부산	P기계공고	27	97	87	0	

주1) 공문 결재 후 수업에 불참하는 것 포함

<표-15> 교육청별 기능반 학생 및 기능반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현황(2012학년도)

시도명	기능반학생성적가산점1)			기능반지도교사2)			비고
	지방대회 가산점	전국대회 가산점	가산점 미부여	지방대회 가산점	전국대회 가산점	가산점 미부여	
서울			0			0	
부산			0		0		
대구			0		0		
인천			0		0		
광주	1	1				0	1개교에서 수행평가에 반영
대전			0	0	0		
울산			0		0		
경기			0	0			
시도명	기능반학생성적가산점1)			기능반지도교사2)			비고
	지방대회 가산점	전국대회 가산점	가산점 미부여	지방대회 가산점	전국대회 가산점	가산점 미부여	
강원	6	6	15		-		
충북			0			0	
충남			0	0	0		
전북			0	0	0		연구보고서 평가
전남			0	0	0		
경북			0	0	0		
경남			0		0		
제주			0		0		
세종			0	0	0		

주1) 가산점 부여시 "0"표로 기재, 일부 학교가 적용할 경우 학교수 표시

주2) 기능대회 입상학생 지도실적보고서를 심의하여 가산점을 주는 것 포함

4-2. 공업고 예산대비 실험실습비, 일반 학생대비 기능반 실험실습비, 기능반 운영비 현황

<표-16>을 보면 4% 내외의 기능반 학생들이 학교전체실험실습비의 38%까지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반 학생에 비해서 기능반 학생이 실험실습비를 9배까지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능반 운영비와 기능반 실험실습비를 합치면 기능반에 투입되는 비용이 1.3~3.7억여원으로 기능반에 웬만한 중학교 6개월에서 1년 운영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반 학생에 예산이 과다 부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 학생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 기능반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기능반 학생이 수업을 전폐한 기능반 훈련에 몰두하는 이유는 전국기능대회 메달 획득을 위한 과당경쟁 및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 완화가 필요하다.

<표-16> 2011학년도 4개 지역 4개교 실험실습비 및 기능반 운영비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학교	교당 전체예산대비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				기능반 운영비 ¹⁾
		전체예산	실험실습비	비율	일반학생		기능(영재)반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서울	S공고	8,646,800	359,763	4.16%	257,680	71.62%	102,082	28.37%	267,203
인천	I기계공고	4,909,847	162,275	3.31%	100,625	62.01%	61,650	37.99%	138,613
대구	K기계공고	5,991,906	351,000	5.86%	338,454	96.43%	12,546	3.57%	224,454
부산	P기계공고	4,215,148	174,168	4.13%	139,334	80.00%	34,834	20.00%	92,800

주1) 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실업계고교 대회 지원금, 기능(영재)반특별지원비, 기능대회 모의평가비, 기능경기대회 하계·동계훈련비, 합숙훈련비, 기능반 식대(교육청 지원 목적경비 포함) 등

4-3. 기능대회(지방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진로

올해 졸업한 기능대회 입상자의 전국평균 취업률이 50.2%로 일반학생 취업률 38.6% 대비 11.6% 높으나 50.6%의 취업률은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배출한다는 기능반 육성 취지 및 현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과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대회에 대비한 집중훈련으로 인해 때로는 정규 수업도 빠져가면서 실습비 및 기능경기대회 출전 및 훈련비를 많이 쓰는 기능대회 출전학생의 50%만 취업하는 것은 기능반 학생의 졸업 후 진로 보다는 기능대회 입상위주의 훈련에 힘을 쓴 결과로 생각된다. 숙련된 기능인력인 기능대회 입상자에 대한 졸업 후 진로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다면 취업률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숙련된 기능인력인 기능대회 입상자가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공고한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하여야 한다. 즉 기능대회 종목별 후원기업을 지정하고 입상자는 후원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시스템 구축과 22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능대회 종목에 대한 산업체적합성 평가를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 위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표-17> 기능대회 입상자 2012년 2월 졸업생 진로 일반 현황

(단위 : 명, %)

교육청	취업자 수 ¹⁾		대학 진학자수 ²⁾				기타 (취업준비, 진학준비)
			4년제		2년제		
	동일계	비동일계	동일계	비동일계	동일계	비동일계	
서울	52(47.7)	2	9	1	20	0	25
부산	39(56.5)	3	9	0	13	2	3
대구	36(42.4)	2	5	0	30	0	12
인천	33(50.0)	3	4	0	18	3	5
광주	25(43.1)	2	6	0	7	0	18
대전	17(48.6)	0	9	3	4	2	0
울산	18(46.2)	0	3	1	12	1	4
경기	57(53.3)	3	16	0	24	3	4
강원	24(44.5)	3	15	0	10	0	2
충북	20(48.8)	1	7	0	11	0	2
충남	21(29.6)	0	19	2	14	5	10
전북	12(36.4)	4	6	0	10	1	0
전남	18(54.6)	5	6	1	17	0	0
경북	57(60.0)	1	7	1	21	5	3
경남	36(55.4)	1	7	0	10	0	11
제주	14(34.2)	0	7	0	12	0	8
평균	479(47.2)	30	135	9	233	22	107

주1) 전공과 관련있는 곳으로 취업하면 동일계, 전공과 관련없는 곳으로 취업하면 비동일계

주2) 매년 학기 초 교육청에 보고하는 교육통계(교육통계연보를 위한 기초자료) 및 자체학교 자료 참조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전문계고 특별전형에 의한 동일계 기준을 적용하되 계열이 다른 분야로 진학할 경우(기계과 졸업생이 레저스포츠 학과, 생명과학부 진학 등)는 비동일계 처리

5. 교과부 직업교육정책 추진 현황

5-1. 교과부 2005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항목별 추진상황

참여정부시 만들어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2011년 지출 비용 및 사업 내용과 2012년 예산 현황 및 현 정부 들어 추진된 현황을 살펴보면 <표-18>과 같다.

교과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의 대폭 확대 방안의 중에서 각 정부부처에 의한 전문계고 특성화는 102개교,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 육성하는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는 300개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는 21개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부부처에 의한 전문계고 특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광역·기초)에 의한 전문계고 특성화 대신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 산업체 및 직능단체에 의한 전문계고 특성화 대신 마이스터고 추진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광역·기초)에 의한 전문계고 특성화, 산업체 및 직능단체에 의한 전문계고 특성화 지원이 중요하다. 전문계고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산학협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 전문계고 기초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중에서 일반 전문계고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도입의 경우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12년에 국, 영, 수 기초학력 보장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인터넷평가로 진행되는 관계로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전문계고 학생이 평가에 진정성 있게 임할지 의문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다. 또한 학교별로 컴퓨터의 성능 차이가 많아 10월 중순에 실시하는 인터넷 평가시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제대로 된 평가의 기반하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지도도 국, 영, 수 기초학력 보정이 가능할 것이나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인터넷평가로 진행하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초학력책임지도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지필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지 인터넷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실업고의 교육과정 전면개편의 경우 혁신방안에 의거 기존 256과목에서 251과목으로 개편되었다고 하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새로 배부되는 시

점에 2009개정 교육과정이 급속하게 추진됨으로서 종전 교육과정 보다 더 낡아진 것이 없다는 직업교육계의 지적이 있다. 교육의 설계도인 교육과정 개발이 이 줄속적으로 추진되면 투입 예산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컨설팅, 직업교육 CEO 연수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수년간 학교 컨설팅, 직업교육 CEO 연수가 추진되었으므로 이제는 이 사업들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평가하여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잘 될 것은 계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 연수를 위한 연수로 끝나면 예산 낭비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방안에 의거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의 다양화·내실화, 직능단체 등 경제단체의 현장실습 지원,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가 제시되었으나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올해 4월 17일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이 발표되어 앞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하는 정도이다. 현 정부에서 전문계고의 취업을 제고차원에서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펴고 있으니 만큼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의 다양화·내실화, 직능단체 등 경제단체의 현장실습 지원,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계속 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전문계고 학생의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인하여 전문계고에 공부하면서 심화교육을 원하는 학생이 동일계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나 얼마 안되는 정원 외 3% 특별전형을 1.5%로 축소하는 대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재직자 특별전형을 추진하는 대학의 개설 전공학과가 몇 개 안되어 자기 전공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공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평생직업 교육 차원의 계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기관학생 교육복지 확충의 일환으로 장학금 지급 확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장학금 지급 확대는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방공무원 특별임용도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는 특성화고 학생의 과잉 대학 진학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정성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이 직업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학협력력 인프

라 구축을 통해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표-18> 교육부 2005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및 항목별 추진상황

(단위: 천원)

구분	내용	2011년 지출비용	2012년 예산	2011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중등 단계 직업 교육 혁신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의 대폭 확대	지자체(광역·기초) 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	-	○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 육성 하는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운영 : 300교
		산업계 및 직능단체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20,540,000	29,600,000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육성 추진(21교)
		각 정부부처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¹⁾	-	-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운영 : 3부 2청, 102교 운영
		농어촌실업고를 '지역중합문화센터' 로 육성	-	-	○ 문화관광부 추진사항
	일반 실업고의 기초직업 교육	일반 실업고의 교육과정 전면개편	-	-	○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기존 256과목 →251과목으로 개편 개정,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통합형고 제도의 본격 도입	-	-	○ 추진사항 없음
		일반실업고의 기초학력책임 지도제 도입	-	900,000	○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국, 영, 수 기초학력 보정자료 개발(12)
		실업고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	-	○ 시·도교육청 추진사항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	학교 컨설팅 활성화	-	-	○ 시·도교육청 추진사항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설치·운영 지원	-	-	○ 추진사항 없음
교원수급의 유연성 제고		-	-	○ 시·도교육청 추진사항	
산업수요의 예측에 근거한 실업고의 일반고 전환 검토	18,600,000	-	○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방안 수립 (11.6)		
일반고의 교양직업교육 강화	-	-	○ 중·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 확대 - '11년 41% → '12년 43% ○ 교과통합 진로교육메뉴얼 개발·보급 - '11년 교과통합 진로교육 학습지도안		

구분	내용	2011년 지출비용	2012년 예산	2011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매뉴얼 개발(7종) - '12년 교과통합 진로교육 학습지도안 매뉴얼 개발(초등 1종, 중등 6종)	
진로 지도 및 취업 지원	각급 학교 진로지도 활성화	12,475,000	20,575,000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11년~) - 2012년까지 2,999명 배치 -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치 추진 ○ 종합 진로·직업정보 포털 커리어넷 www.career.go.kr 운영 - 진로 심리검사, 사이버상담, 직업정보 제공 ○ 시도교육청 지원 ○ 교육기부를 활용한 직업체험 활성화	
	진로지도 지원 인프라 구축			○ 교육기부를 활용한 직업체험 활성화 - 시도교육청 진로진학 센터 구축 지원	
	'직업 종합체험실' 설치	-	-	○ 교육기부를 활용한 직업체험 활성화 - 시도 교육청과 738개 기업간 교육기부 MOU 체결	
	실업고 학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시·도교육청 추진사항	
	실업고 학생 현장실습의 다양화·내실화	-	900,000	○ 현장체험·현장실습 연구학교 운영 ('11~'13년) ○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수립 (12.4.17) 운영 중 -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령 연수 (학생, 교원) - 현장실습 및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개 발(21종)	
	직능단체 등 경제단체가 실업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	-	-	○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수립 (12.4.17) 운영 중(교과부, 고용부, 중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 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우수 실업고 학생 해외 직업교육연수프로그램 도입	4,840,000	4,600,000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실시('11 년 최초 실시)	
	전문대 학생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5,000,000	4,621,000	○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589명 파견 ○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 국내 점검(11.21~23), - 해외 점검(11.28~12.3/12.12~12.17) ○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발전방안 포럼 개최('11.12.7)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	-	-	○ 노동부 및 시·도교육청 추진사항	
	학교기업의 활성화	11,000,000	13,000,000	○ 51개교 학교기업 110억원 지원을 통 해 정부 지원금 1억원당 26,266명 현장실습 실시	
계속 교육 활성화	직능인의 대학입학 문호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대학	0	1200,000	○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대학 증가 - ('10)3교→('11)7교→('12)23교→('13)50교 예정

구분	내용		2011년 지출비용	2012년 예산	2011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입학·편입학 문호 확대				- 고려대, 한양대 등 주요대학 도입 ○ 사내대학 4교 설치 추진 -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LH, 현대중공업
		실업고 졸업생 동일계 특별전형 적극 추진	-	-	○ 법령개정(동일계특별전형 상한 3%, 재직자특별전형 상한 4%, '13학년 도부터 적용)
	사내 대학 및 기술 대학 지원		-	-	
	산업체에 의한 실업고·전문대·대학 협약학과 운영		-	-	
직업 교육 기관 학생의 교육 복지 확충	실업고 장학금 지급 확대		241,528,669 (국고 및 지방비)	252,800,000 (국고 및 지방비)	- 지원인원 210,458명(2011.9.1 기준) - 지원금액 1인당 1,147천원
	전문대 학생 근로 장학금제 도입		22,800,000	19,000,000	
	실업고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	-	* 16개 시도교육청 '12년 채용계획 수 립 추진 중(교육청 전북4명, 서울3 명 등, 도청 경기 23명, 충남14명 추진중)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		2,960,000 (특교)	3,120,000 (특교)	
합계					

5-2. 교과부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2011년과 2012년에 추진된 현황을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마이스터고 통한 취업선도 모델 정착 차원에서 첫 개교한 마이스터고의 현장착근 결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12년까지 50개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첫 개교한 마이스터고의 졸업생이 내년 2월 배출되므로 50개교 확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1차 선정 마이스터고의 준비기간 2년, 실행기간 3년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마이스터고 증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행·재정

차별화에 따른 중등직업교육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 취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분야별 「산업별 협회」와의 협약 확대가 제시 되었는데 2년간 4개 산업 협회 정도하고만 협약이 된 것으로 되어있다. 그나마 기계, 전기, 전자 등과 같은 전문분야 협회 보다는 국책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협약이 추진되었다. 수십 개 산업별 협회 중에서 4개 산업관련 기관 정도하고만 협약이 된 것은 아직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산업별 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산업별 협회 산하의 산업체에서 취업을 고려한 현장실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개편·확대 차원에서 진학위주의 특성화고를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확대·내실화하는 방안 제시에 따라 동일계진학에 안주하였던 특성화고가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률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유의미한 일이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제시한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 육성하는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운영(300개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라고 해서 모두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 육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교육청이 지원하되 일부 지자체와 산업체가 일부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000년 교육부는 실업고 육성대책에서 지자체장이 산·학·관 협력차원에서 주관하도록 되어있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시행)을 제시한 바 있고, 2008년에 OECD 직업교육연구진이 OECD 직업교육훈련 국제비교라는 연구를 통해 “고용주들과 노동조합들이 대표가 되어 체계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지만 아직까지 지자체와 산업체가 특성화고 육성에 관심을 찾고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 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산업체 및 산업별협회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면 취업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산업체 및 산업별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행·재정 지원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에 대한 주요 추진 실적이 직업기초능력

1, 2차 시범평가 및 전수 시범평가이다.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강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이다. 직업기초능력만 평가하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산학관이 협력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틀을 협의하고 Skill-mismatch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19>를 보면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차원에서 재직자특별전형도입대학을 늘리고, 취업기능강화 선도학교 지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직자특별전형도입대학을 늘리고, 취업기능강화 선도학교 지정운영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대학이 몇 개 학과에 불과하여 수많은 학과를 졸업한 전문계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고, 주5일제라 할지라도 산업계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여건에서 후진학을 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대학 및 학과를 다양화하고, 평생직업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후진학을 허락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취업기능강화 선도학교 지정운영만으로 특성화고의 취업이 촉진되는 것만은 아니기에 단위학교의 노력과 산업체의 협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즉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기업은 산학협력우수기업인증을 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하여 산업체의 참여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 지원 및 평가·관리제도 마련차원에서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및 학교 평가, 관리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즉 2010년에 전문계고 체제개편 추진 및 추진단 운영에 58억원이 지출되었고, 2011년에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183억원 교부되었다. 기존 마이스터고 예산 외에도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2년간 241억원이 지출된 것이다.

특성화고 체제개편에도 2010년~2년간 241억원이 지출된 만큼 철저한 사업 평가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과 내실화 되어야 할 사항을 찾을 필요가 있다. 거창하게 사업만 벌여 놓았지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보아 왔기 때문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Plan-do-see-feedback 시스템이 가

동되도록 하되 평가 시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과 추진을 교과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고 평가까지 교과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도적으로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결여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안민석, 2011).

따라서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대한 평가는 교과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아닌 다른 교육단체가 하여 객관성을 담보한 면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표-19> 2010년 5월 발표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2011년~2012년 주요 추진 내용

분 야	구체적인 관련 대책	2011년 추진 내용	2012년 추진 내용	
전문 계고 체제 개편	마이스터고 통한 취업선도 모델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개교한 마이스터고의 현장작근 결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12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추진 ○ 전국적 취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분야별 「산업별 협회」와의 협약 확대 ○ 마이스터고 취업 포털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스터고 지정 - 제4차(4교, 3월) - 제5차(5교, 11월) ○ 마이스터고 운영현황 모니터링(상하반기) ○ 산업별 협회와 협약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술연구원(5월) - 품질명장협회(5월) ○ 마이스터고 홈페이지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스터고 지정 - 제6차(2교, 3월) - 제7차(진행중) ○ 마이스터고 재지정심사 계획 수립 예정 ○ 산업별 협회와 협약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앙회(3월) - ATC협회(6월)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포털시스템(HIFIVE) 구축·운영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개편·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위주의 특성화고를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확대·내실화하고, 선취업 후진학으로 유도 ○ 산업계와 특성화고간 협력 확대 및 연계 강화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는 신규 참여부처 확대 ○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 육성하는 특성화고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와 공동으로 이론중심에서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편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운영 : 3부 2청, 102교 운영 ○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 육성하는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운영 : 300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와 공동으로 이론중심에서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편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운영 : 6부 3청, 127교 운영 ○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 육성하는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운영 : 300교
	종합고 등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직업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전문계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통폐합 및 일반계고 전환 추진 ○ 임여 전문교과 교원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유관분야 부전공 및 복수전공 특별연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방안 수립(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체제개편 (10)692교-(12)653교

분 야	구체적인 관련 대책	2011년 추진 내용	2012년 추진 내용
체계개편 지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강화	국영수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직업기초능력 평가 준비를 위한 교사연수 및 연구학교 운영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강화	○ 직업기초능력 강화 사업 추진 ○ 직업기초능력 1, 2차 사범평가 및 전수 시범평가 ○ 직업기초능력 연구학교 4교 운영 ○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사 연수(3회, 350명)
	선취업 후진학 체제구축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후진학 체제 구축 특성화고 학교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촉진	○ 재직자특별전형도입대 학 증가23교 ○ 사내대학 설치 심의(4개 기업) ○ 취업기능강화 선도학교 지정운영(12년 307교) ※ '09년-'15년까지 예산편성
	재정지원 및 평가·관리 제도 마련	전문계고 체제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학교 평가·관리제도 마련	○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성과관리(평가) 연계방안 연구

5-3. 중기청 지원 중소기업특성화고육성사업의 2012년 정부·교육청 지원 사업비 지원 현황

2012년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60개교를 살펴본 결과 중기청 사업비만 받는 학교는 14개교이고,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사업을 제외하면 3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학교는 11개가 되었다.

또한 1~2개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 사업비가 3.87억인 학교가 있었다.

작년 김춘진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2011년의 경우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68개교 중에서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 사업비 2억 내외만 받는 학교는 20개교(10년 31개교, 09년 33개교)이고, 3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학교도 10개나 되었다는 것과 5개의 사업비를 추가지원 받아 6.19억인 학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이래 한 학교에 편중 지원하는 일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육성사업 추진의 주 목적이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취업을 제고이므로 앞으로는 취업기반이 확립된 학교 보다는 취업기반이 부족한 학

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취업여건이 좋은 학교는 취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취업여건이 바쁜 학교는 취업률이 계속 담보상대인 이른바 취업에 있어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표-20>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의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사업비 및 기타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학교명	중기청 지원 특성화고 사업비	기타사업 내용 및 사업비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257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94
	선일여자상업고	170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77
	경기상업고	190	
	서울공업고	210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90
	용산공업고	210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85
	영광여자정보고	170	기술사관육성사업 20
	서울여자상업고	257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 100
	한양공업고	210	
	서울디지털고	19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99, 기술사관육성사업38
	문학정보고	190	
인천	한국문화콘텐츠고	220	문화콘텐츠고교특성화지원사업30, 1팀1기업프로젝트8
	인천디자인고	147	
	인천기계공업고	190	
	인천여자공업고	257	
	강남영상미디어고	165	
	인천여자상업고	210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26,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73
	인천비즈니스고	190	
	군자공업고	21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34, 취업지원관지원30
	군포비즈니스고	19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34,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77
	매항여자정보고	19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42,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77
경기	안성두원공업고	170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28
	삼일상업고	257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130,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77
	수원정보산업공고	264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74,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187
	사회공업고	237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39,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74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139
	평촌공업고	147	산업체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51
	계동공업고	190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53
	대전여자상업고	257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89
	대전공업고	257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59
	대전신일여자고	147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사업 49
충북	제천산업고	190	특성화고평가 운영비지원 22, 취업기능강화사업비
	충북공업고	190	특성화고평가 운영비지원 33, 취업기능강화사업비 중소기업 기술사관

시도	구성 여부	운영 내용		
		협의회위원구성	협의회 개최일시	주요 협의내용
울산	X			
경기	X			
강원	X			
충북	X			
충남	X			
전남	X			
전남	○ (교육감 미참여)	전남교육청 관계자 3명, 학교장 3명, 지자체 관계자 2명, 중소기업청 관계자 1명, 고용센터 관계자 3명, 상공회의소 관계자 1명, 폴리텍대학 2명, 산업체 관계자 3명	2011.04.04.	전남직업교육방향
경북	○	장학관(1), 장학사 (6)	2011.11.22.10:00	위탁교육기관으로써의 적정여부 심의
경남	X			
제주	X			

5-5. 산업체에 의한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사업(제1모형:취업/진학병렬형) 지원 예산 및 운영 결과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는 산업체에 의한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사업 지원 예산과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사업종료에도 불구하고 38명이 취업한 학교가 있는 학교와 2008년 사업종료 후 1명만 취업한 학교가 있다. 또한 2억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10명만 취업을 한 학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과 진학을 병행하는 산학협력취업약정사업이 추진이 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산학협력취업약정사업에 대한 단위 학교의 추진의지 및 산학협력인프라 미구축에 의한 사업 추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사업 추진 환경 조성 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급급하기 보다는 사업의 추진 계획부터 추진 경과를 제대로 살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22> 산학협력취업약정제(협약기업-협약학과)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 및 취업 현황(2012년 2월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천만원)

시도	전문계고 학교명	소속 사업단 및 참여대학	산학협력취업약정 기업명	산학협력취업약정 기업취업자수	산학협력취업약정 사업 지원예산 (2011년도)
부산	부산산업과학고	경남정보대학 금형 및 신발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단	(주)오영, (주)세원, (주)영풍제화, (주)성우무역	1	2008년 사업종료
대구	대중금속공업고	영남이공대학교	남양금속㈜외 10개사	10	200,000
대전	대성여자정보과학고		㈜디아이디, ㈜크라운제과, ㈜동부하이텍, 대한통운, 갤러리아타임월드	38	2008년 사업종료
울산	울산생활과학고		CK 아트홀, STC, 공업탐컨벤션	3	2010년 사업종료
충북	미원공업고		화신, 청일산업, 영천면암기, 진흥코퍼레이션, 가희, 파켄오피씨, GP&C	27	70,700
경북	우석여자고	구미1대학	LG Display	5	2,250

5-6.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사업 완료학교의 특성화 사업 분야로의 취업 현황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산학협력협약(참여)기업으로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사업분야로 6명 취업이 된학교부터 96명까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3년간 6억여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차이가 많이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없이 예산위주로 지원한 결과이기에 교과부는 단위학교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예산 위주의 사업 보다는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김춘진, 2011).

산학협력우수 전문계고 사업의 목적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school to work)' 도모이었기에 산학협력우수 전문계고 사업으로 인하여 산학협력기업으로의 취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통하여 산학협력인프라 구축이 잘 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단위학교의 진정성 있

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업목적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도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분야에 취업이 부진한 학교가 나옴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금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사업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것이다(이성주, 2011).

<표-23>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산학협력협약(참여)기업으로의 취업 현황
(2012년 2월 졸업생 진로 현황)

항목	산학협력우수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분야	특성화분야 산학협력기업명	특성화분야 취업자수
서울	서울공업고	지능형로봇/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킹, 디스플레이/나노, 디지털콘텐츠, 자동차 산학협력 전문생산인력 양성	송우전자㈜, ㈜카스, 서울수정㈜,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사)한국벤처기업협회 등	83
부산	경남공업고	산.학.대학 컨소시엄을 통한 인공지능로봇 차세대기술인력양성사업	대덕GDS, 용진정밀, 화인, 한일정밀, 우리텍, 대광브레이크	10
대구	대중금속공업고	반도체/PCB 관련우수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울리콘발저스,영진, 동양산업,성림철단	10
인천	인천정보산업고	산학관컨소시엄의 맞춤형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성장동력산업 기초인력양성	㈜동부하이텍, ㈜국민전자, ㈜삼광전자, 삼광전자, 선경산업, ㈜신강전기, ㈜정화테크, IBK기업은행, ㈜지트시스템, 그린웹솔루션	23
광주	광주공업고	지역 중점육성산업(광산업,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자동차 산업, 백색가전·반도체산업)의 클러스터구축에 필요한 다차원 기능인력양성	(주)삼성전자외 35개 업체	86
울산	울산공업고	지역 성장동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지능형 로봇)	노벨정밀금속㈜, ㈜유창과워텍	6
충북	금왕공업고	반도체장비 분야의 창의적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광전자, 네페스, 테스, 하나마이크론, 하이디스, 티에스이, STS반도체통신, 명정보기술, 신성솔라, 세미텍	85
충남	공주공업고	크리스탈밸리(Crystal Valley)중심 디스플레이 전문생산인력 육성사업	SMD, 케이에스텍, 하나마이크론, 에스엘트 로닉스, 우림코원	16
전남	목포공고	전남 조선메카트로닉스산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세진산업,금오MT, 태성기업,신우산업,한국기계, 은적산업	13
경북	구미전자공업고	디스플레이산업 기능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LG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SMD),LG이노텍	96

5-7.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 현황

교과부는 2009년 국정감사 시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 개선방안 연구(2007)”를 통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통합표시과목 개선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교과부는 “동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계고 선진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바 있다(제284회 국회(정기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10.23.>).

이에 대하여 교과부는 통합표시과목 운영으로 인하여, 전공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09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9호」를 통하여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42학점 이상'에서 '5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기본이수과목의 경우도 '14학점 이상'에서 '21학점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11년 「교원 연수 선진화방안」을 수립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원의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교과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과부의 답변대로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42학점 이상'에서 '50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기본이수과목의 경우도 '14학점 이상'에서 '21학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할지라도 일종의 복수전공영역에 속하는 전문교과 통합표시과목의 경우 자기전공만 이수하면 타 전공과목은 하나도 이수하지 않아도 통합된 자격증을 부여하는 전문교과 교사자격증 통합표시(통합표시과목)제도를 계속하고 있어 특성화, 전문화(마이스터고)되는 전문계고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전공과목 이수학점과 기본이수과목을 상향 조정하였다할지라도 화공전공자가 화공전공과목만 이수하고 기본이수과목 중에서도 화공전공과목만 이수하여도 화공과 섬유가 통합된 화공·섬유자격증을 주는 시스템 하에서는 제대로 된 교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계·금속, 전기·전자·통신, 건설(건축·토목) 과목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화공전공학생이 섬유전공과목을 이수하고자 하여도 화학공학과가 있는 대학에 섬유공학과가 없는 대학이 많이 있어 현실적으로 화공전공자가 섬유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아울러 공과대학 공학인증제 도입으로 인하여

자기 전공을 강화하는 추세이어서 자기과 이외의 학과에서 학점을 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도 존재한다. 이 또한 기계·금속, 전기·전자·통신, 건설(건축·토목)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공업 분야 통합표시과목의 문제점과 대안을 공업교육학회 및 공업 분야 교직이수 대학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양성단계에서 교과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특성화, 전문화(마이스터고)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24> 정책연구에서 제시한 중등 교사자격증 통합표시과목의 문제점 및 대안

전문계 통합표시과목 교원양성 및 임용상의 문제점 <화공·섬유, 기계·금속, 건설(건축·토목) 등>	<p>화공관련 학과에서는 섬유분야 이수과목을 거의 개설하고 있지 않고, 섬유관련 학과에서는 화공분야 이수과목을 거의 개설하고 있지 않음(토목과 건축, 기계와 금속도 마찬가지임) : 공통과목은 10% 내외임</p> <p>※ 화공과가 있는 대학에 섬유공학과가 없는 대학이 많아 화공전공자가 섬유공학을 공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건축, 토목/기계, 금속도 동일)</p>
	<p>학부제라 할지라도 2학년에 가면 전공을 세분하여 선택하고 있으며, 자기 전공을 강화하는 공학인증제로 인하여 타학과의 전공과목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음(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타전공이수는 복수전공을 하여야 가능)</p>
	<p>일반 복수전공의 경우 전공별로 5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나 통합표시과목의 경우 타전공과목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아도 통합된 자격증 부여</p> <p>※ 일반 학부에서 기계전공자가 금속 복수전공을 하려면 금속 전공과목 50학점을 이수하여야하나 공업계 교원 통합표시과목의 경우 기계전공자가 기계과목만 이수하여도 기계, 금속 통합표시과목인 기계·금속자격증 수여</p> <p>※ 일반 학부에서 화공전공자가 섬유 복수전공을 하려면 섬유 전공과목 50학점을 이수하여야하나 공업계 교원 통합표시과목의 경우 화공전공자가 화공과목만 이수하여도 화공, 섬유 통합표시과목인 화공·섬유자격증 수여</p>
	<p>교원양성과정에서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공업고에서 가르쳐야 하는 일 발생(화공전공자가 교원 양성단계에서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제포봉제<직물·편물>, 섬유재료 등을 가르쳐야하는 일 발생)</p>
통합표시과목 개선방안	<p>통합표시과목 분리 및 부분 통합(화공·섬유는 화공과 섬유로 분리, 전기·전자·통신은 전기와 전자·통신으로 분리)</p>
	<p>현직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p> <p>통합표시 전의 원 전공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하고,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은 부전공과목으로 처리(화공전공한 화공·섬유 전공자의 경우 화공 전공, 섬유 부전공)</p>
	<p>통합표시과목을 소지하고 졸업한 자에 대한 경과 조치</p> <p>통합표시과목을 갖고 있는 졸업자의 경우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의 전공 분야별 과목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통합표시 분리과목 모두에 대한 응시 기회를 주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공(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 관련된 표시과목(분리과목)으로만 응시하도록 함</p>

주) 정책연구시 설문에 참여한 공립공업고 교원의 82%, 교직이수 대학 공과대 교수의 76%가 통합표시에 반대로 응답하였고 교원대에서의 공청회를 거쳐 통합표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음(공립고 공업계 교원의 약 5,500명 중에서 약 24%인 1,236명이 설문에 참여)

<표-25>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표시과목	관련 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고
기계·금속	기계·금속기계공학교육, 기계공학, 기계공학, 생산기계공학, 항공(기계)공학, 조선공학, 선박해양공학, 기계공학교육(자동차전공), 자동차공학, 전자기계공학, 재료공학, 금속공학교육,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금형설계학, 기관공학, 수산교육 및 관련되는 학부	공업교육론, 고체역학(또는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또는 금속열역학), 내연기관, 기계설계(또는 자동차설계), CAD/CAM, 기계공학법(또는 NC가공), 정밀공학법(또는 일반 공작기계), 용접공학, 배관공학, 박용기관, 일반 조선공학(또는 선박설계), 자동차 공학, 유압 공학, 전기공학(또는 제어공학), 전자회로(또는 디지털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설계, 정밀공학, 센서 및 신호처리, 전자기계, 금속재료, 금속 조직학, 화학 야금학(또는 물리 야금학), 금속 강도학, 철강 재료학, 금속 제련학, 주조공학(또는 소성가공), 부식 방식학	21학점 이상 이수
화공·섬유	화공·섬유화학공학교육, 공업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정밀화학공학, 섬유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화공양론(또는 섬유가공학), 물리화학(또는 섬유화학), 유기화학(또는 염색화학), 화공열역학, 단위조각, 반응공학, 공정제어, 생물화학공업, 고분자공학(또는 섬유가공학), 분석화학, 섬유물리, 방직공학, 제포공학(또는 편성공학)	"
건설	건축공학교육, 건축(공)학, 토목공학교육, 토목공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기초공학, 건축구조, 환경계획 및 실험, 환경위생공학(또는 상하수도공학), 건축설비, 건축재료(또는 토목재료),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건축설계(또는 강구조토목설계),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건축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측량학	"
전기·전자·통신	전기공학교육,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자공학, 항공전자(공)학, 전자재료공학, 제어계측공학,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자계산기공학, 통신공학, 항공통신공학, 전자통신공학, 통신학, 전파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기계공학, 수산교육, 수산해양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공업교육론, 전기일반,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제어공학, 전기설비및배급, 디지털시스템, 전력공학, 전력전자공학, 디지털회로실험(또는 디지털회로설계), 통신이론, 전자기기, 반도체 공학, 전기전자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파응용, 마이크로파공학, 안테나공학, 디지털통신, 무선통신시스템, 정보통신(또는 컴퓨터네트워크)	"

1994년 10월 당시 민주당 김원웅 국회의원이 발행한 교육백서 “소외된 교육부문 실태백서 및 문제점과 대안”의 서문에 “한강을 되살리려면, 먼저 냇강부터 되살려야 하듯이 교육을 되살리려면, 그늘지고 소외된 곳부터 살피야한다?”라는 글이 실린바 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살피지 않으면 사회양극화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고, 사회양극화의 고착화는 소외된 집단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 두 국민으로 존재하도록 하여 국민적 통합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강연홍 외, 2009).

따라서 소외된 계층의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계고 지원 및 내실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늘리고 취업률이 낮아져 전문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정체성이 문제되고 있는 시기에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펴므로 해서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IMF 이후에 급속히 나빠진 고졸 취업환경 개선 없이 취업률 60% 달성만을 강조하면 취업의 질 저하로 이어져 전문계고 기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 2012년 12월에 교과부에서 2013년 취업률 60% 달성을 제시한 상황 하에서 기아자동차에 실습나간 학생의 뇌출혈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취업률 높이기 위한 무리한 현장실습이 도마에 오르내린 것을 교과부는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교과부는 마이스터고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에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기 보다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동반발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등 직업교육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할지라도 산업체의 참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되고 마는 것이니 만큼 교과부가 직업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면서 공고한 산·학·관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래야 전문계고의 현장합성이 증가되어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순기능은 극대화하

고, 역기능은 보완하여야 한다. 예산만 쓰고 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기능반 학생도 마이스터고 학생 못지않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학생이니 만큼 마이스터고 학생처럼 취업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지도하되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 차원에서 수업을 전폐하는 관행은 없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현 산업사회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초학력과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정책보고서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제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직업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을 방안으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학벌·학력주의 완화, 능력중심사회 구축, 공고한 산·학·관 협력 인프라 구축과 대졸 중심의 청년실업대책을 뛰어넘는 대책이 있어야 대졸 하향취업에 의한 고졸의 역차별이 해소되고, 전문계고의 취업률도 증가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연홍, 이병욱, 박동렬, 이성주 외(2010), 서울특별시 전문계고 중·장기 발전 방안, 서울시
교육청 연구용역 보고서
- 김춘진(2010). 제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 김춘진(2011). 제30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 안민석(2011). 2011년 국정감사 요구-교과부 제출자료
- 안민석(2011). 2011년 국정감사 직업교육 자료집
- 조은상·김수원·옥준필(2008). OECD 직업교육훈련 국제비교(II)
- 직업교육 관련 학회 및 교장회(2009).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직업교육 관련
학회 및 단체 입장(보도자료)
- 이성주(2011). 산학관협력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발제문. 한나라당 이윤성의원 주최·한국직업
교육단체총연합회 주관 국회직업교육정책토론회.
- 임해규(2009). 2009년 한나라당 임해규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②

중등 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

펴낸이 : 국회의원 유은혜

만든이 : 국회의원 유은혜

펴낸날 : 2012. 10
